

 국토교통부	보 도 자 료		I·SEOUL·U
	배포일시	2018. 11. 1.(목) 총 8매(본문2, 붙임6)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공원정책과	담당자	·과장 김동준, 사무관 박영순, 주무관 전조정 ·☎ (02) 2131-2033, 2035
	서울시 도시계획과	담당자	·과장 양용택, 팀장 이호진, 주무관 김홍렬 ·☎ (02) 2133-8450, 8341
보 도 일 시		2018년 11월 2일(금) 14:30이후 보도 가능합니다.	

닫혀있던 용산 미군기지가 열린다..2일부터 6차례 버스투어 일반인 참가신청은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 용산문화원 홈페이지 접수

- 약 114년간 일반인의 접근이 허용되지 않아 금단의 땅으로 닫혀있던 용산미군기지가 열린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용산 미군기지 내 주요 장소를 버스로 둘러 볼 수 있는 ‘용산기지 버스투어’를 11월 2일부터 올해 말까지 6차례 진행한다고 밝혔다.
 - ‘용산기지 버스투어’는 기지 내 역사적·문화적 유의미한 장소 등을 둘러보면서(9km), 주요 거점에서 하차하여 공원 조성 방향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공원조성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용산 미군기지는 1904년 일제가 러일전쟁을 기점으로 용산 일대를 조선주차군사령부(朝鮮駐劄軍司令部)의 주둔지로 사용한 이후, 일반인 출입이 금지되어 왔다.
 - 2005년 용산기지의 국가공원화 결정 이후 지난 6월 주한미군사령부의 평택 이전을 계기로 용산기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군이 사용 중인 군사시설이라는

한계로 지금까지는 국민들이 용산기지를 직접 들어가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 이에 미군의 부지 반환 이전이라도 국민들이 용산기지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국방부·서울시 및 미군이 협력하여 용산기지 내부를 일반시민 등이 둘러볼 수 있는 ‘용산기지 버스투어’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 1차 투어는 11월 2일(금)에 개최되며, 100여 년 만에 개방되는 용산기지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투어 개최를 적극 알리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시장, 국무조정실장 등 정부 관계자, 박순자 국토위 위원장, 전문가, 시민 등이 참석한다.

- 1차 투어 이후, 11월에는 용산부지 및 공원조성 관련 전문가와 지역주민 등을 모시고 3차례(11.8/16/30)에 걸쳐 투어를 실시할 예정이며, 12월에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2차례(12.7/14) 추진할 계획이다.

☞ 투어 행사 계획은 붙임 1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가신청은 용산문화원(www.ysac.or.kr)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 등으로 진행되며, 11.12(월)부터 11.20(금)까지 9일간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 버스 투어 참가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붙임 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이번 버스투어가 백여 년간 굳게 닫혀 있던 용산기지의 땅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체험하게 되는 의미 있는 기회인만큼, 이를 계기로 자연, 역사, 문화적 요소가 어우러진 최초의 국가공원이 될 용산공원에 대하여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응원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전하면서

○ “2019년에는 보다 많은 국민들이 용산기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미군측과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한편, 용산미군기지는 2017년 7월 미8군 사령부의 평택 이전을 시작으로 2018년 6월 평택기지에 주한미군 사령부를 개소하는 등 기지 이전이 계속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용산미군기지 내의 모든 시설의 이전이 완료되면 부지반환협상, 환경조사 등의 부지반환 절차에 따라 용산기지 반환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관광누리 공간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용제브리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공원 정책과 박영순 사무관(☎ 02-2131-203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참고 1

용산기지 버스투어 계획

- 일시 : 주1회(금요일 14시, 필요시 요일 조정) / (소요시간) 약 3시간 소요
 - 첫 행사는 11.2(금)부터 시행하여 '18년은 총 6회* 시범운영
 - * 11.2(금)/11.8(목)/11.16(금)/11.30(금)/12.7(금)/12.14(금) * 12월은 2회 일반국민 공모
- 장소 : 한강로동주민센터*(옆 어린이 공원) 집결 후 용산기지내 버스투어
 -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38길 28(신용산역 2번 출구)
- 참석자 : 1회 최대 38명(버스 1대 탑승)
- 코스 : 14번 게이트→①SP병커(일본군작전센터)→②121병원(총독관저터)→③위수감옥*→④둔지산 정상*→⑤주한미군사령부(한미연합사령부)→⑥한미합동군사업무단*→⑦병기지창→⑧남단*→⑨드래곤힐 호텔*
 - * ③④⑥⑧⑨번은 하차 및 사진 촬영이 가능한 지점



□ 일정

- 투어일정 : '18.12.7.(금), 12.14.(금) 14시 - 17시
- 신청기간 : '18.11.12.(월) - '18.11.20(화) * 12.7, 12.14 투어 동시 접수
- 발표 : '18.11.23(금) 용산문화원(www.ysac.or.kr)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모집 및 선정

- 신청대상 : 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 *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와 함께 신청가능
- 신청방법 : 용산문화원(www.ysac.or.kr) 홈페이지 또는 전화(02-703-0052)
- 선정규모 : 회차별 최대 38명
- 선정방법 : 선착순

□ 참가비 : 무료**□ 기타**

- 신청자가 동행자 1인까지 함께 신청가능
- 전화신청의 경우 신청시간을 확인하여 온라인 신청시간과 대조 후 선정
- 공평한 기회 제공을 위해 회차별 중복신청 불가
- 신청 시 주민번호를 수집하며, 정보 미제공 시 신청불가
- 행사 당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中 1) 미지참 시 기지 출입 제한

1 사우스포스트(SP) 벙커



사우스포스트 벙커는 일제강점기 일본군 방공작전실로 사용되던 건물이다. 광복 이후 미7사단 사령부의 사무실로 사용되다가 6.25전쟁 직전에는 대한민국 육군본부 정보국 작전 상황실로 사용되기도 했던 독특한 양식의 군용 건물이다.

공원계획에서는 현재 원형을 최대한 보존할 계획이며 창이 없는 벙커 모양의 저층부는 문화시설 등으로, 창문이 많은 최상층은 방문자 센터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 총독관저 터 (現 121병원)



현 121병원이 위치하고 있는 자리는 과거 일제강점기 용산 총독관저 부지였다. 용산총독관저는 러일전쟁 직후 일본 군사령관으로 부임해 제2대 조선총독까지 오른 하세가와가 건설한 유럽풍의 초호화 건축물이었다.

처음에는 당시 일본군사령관이었던 하세가와 본인을 위한 군사령관 관저로 지은 것이었으나 1910년 한일강제병합 후 총독관저로 용도 변경하게 되었으며 6.25전쟁 때 상당 부분 파괴되었다.

공원계획에서는 기존 121병원을 해체하고 총독관저 터 및 그 앞에 위치했던 정원을 복원하고 그 주변으로 문화시설(어울림 마당) 및 수경시설(아침호수)를 배치할 계획이다..

3 위수감옥



위수감옥은 현재 국내에 남아있는 유일한 일본군 감옥으로, 1909년에 완공되어 감옥으로 사용되다가 광복 이후에는 이태원 육군형무소로 사용되었다.

현재까지 감옥을 둘러싼 벽돌담장과 내부의 일부 건물들이 당시 원형 그대로 남아있으며, 총독관저 터 일대와 함께 사우스포스트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 장소이다. 감옥 담장에는 6.25전쟁 당시의 총탄 흔적과 출입구 아치 형태의 벽돌쌓기 등 많은 부분이 양호한 상태로 잘 보존되어있다.

공원계획에서도 감옥의 역사를 전시하는 용도를 포함한 문화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4 한미연합사령부



한미연합사령부는 한·미 부대의 작전 통제를 위한 조직이다. 한미연합사령부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1970년대 지어진 건물로 미군시대의 상징적 시설 중 하나이며, 1970년대 한국 근대 건축 양식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어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이다.

한미연합사령부 건물 북쪽에는 일본군 보병 제78연대 정문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던 보행교와 돌기둥이 지금까지 그대로 남아있다.

공원계획에서도 건축물의 외관을 최대한 유지하고 건물 북쪽의 보행교와 돌기둥에서 진입이 가능하도록 건물을 가로지르는 통로를 만들 계획이다.

5 주한미합동 군사업무지원단(JUSMAG-K) (舊 일본군 장교숙소)



현 주한 미합동군사업무지원단(JUSMAG-K) 건물은 원래 용산기지 내 일본 육군 장교들이 숙식을 했던 곳으로 1908년에 완공되었다.

일제강점 하에서 출근 장교관사로 사용되다 해방 직후 한국의 신탁통치와 임시정부수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덕수궁에서 열렸던 미소공동위원회의 소련군 대표단 숙소로 사용되기도 했다.

1955년 미군사고문단(KMAG)의 후신인 주한 미합동군사업무지원단이 대구에서 용산기지로 이전해온 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공원계획에서는 건축물의 원형을 회복하여 편의시설 및 관람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6 舊 병기지창



병기지창은 일본군의 무기 및 탄약을 보관하던 곳으로 용산역과 연계해 인근의 육군창고(현 캠프킴 부지)와 더불어 일제시기 병참기지의 핵심이었다. 현재 이 곳에는 미군 공병대와 시설대가 들어서 있다. 1908년 완공된 병기지창 무기고 건물은 현재도 원형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며 당시 일본의 건축기술을 잘 보여주고 있다.

공원계획에서는 운동장과 건물이 같이 있는 병기지창의 배치 구조를 복원할 수 있도록 마당을 계획하고 건물은 증축된 부분을 철거하고 원형을 회복할 계획이다.

7 남단



남단은 성저십리에서 가장 오래된 제례관련 시설로 조선 왕조 초기 하늘에 제사를 지냈던 곳이다. 1456년 세조2년에 원구단을 정비하고, 1457년 원구서라는 관청을 만든 후 1457년 1월 15일에 제천례를 올렸다.

이후 1464년까지 매년 1월 15일에 하늘에 제사를 지냈으나 그 이후로는 제사를 올린 기록이 없다고 한다.

남단은 1906~08년 일본군 병영 조성과정에서 후암로가 일본군 병영으로 연결되면서 지세가 단절되었고 현재는 일부 유구들만이 남아있는 상태이다. 공원계획에서는 남단의 원지형을 회복하고 현재 남아있는 남단 유구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광복 이전 (~ 1945년)

- (1904년 8월) 일본, 용산 일대 약 1천만m² 군용지로 강제수용
- (1907년 1월) 일본군, 용산 군용지 약 389만m² 최종 확정
- (1910년 8월) 일본, 한일병합조약 강제 조인, 용산기지에 보병 15개 중대 배치
- (1921년 4월) 일본, 용산기지에 20사단 편성 완료

□ 광복 이후 (1945년 ~)

- (1945년 9월) 미24군단 예하 7사단 병력 인천상륙 후 용산기지 진주
- (1949년 7월) 대한민국 국방부 및 육군본부, 용산으로 이전
- (1952년 2월) 대한민국 정부, 용산기지를 미군에 정식으로 공여
- (1953년 9월) 미8군사령부 동승동에서 용산기지로 이전
- (1953년 12월) 주한미군 8개 사단 32만5천명 주둔
- (1957년 7월) 도쿄 유엔군사령부가 용산기지로 이동(주한미군사령부 신설)
- (1978년 11월) 용산기지에 한미연합군사령부 창설
- (1990년 6월) 용산기지 이전 한미기본합의서 및 양해각서 체결
- (1991년 6월) 용산 미군기지 미8군 골프장 반환
- (2003년 5월) 한미정상 용산기지 평택이전 합의
- (2004년 12월) 한미 정상 용산기지 이전 합의 및 국회 비준
- (2005년 10월) 노무현 대통령, 용산기지 국가공원 추진 발표
- (2007년 7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정
- (2011년 5월) 용산공원 정비구역 지정·고시
- (2011년 10월) 용산공원 종합기본계획 수립 * 변경 2014년 12월
- (2017년 7월) 용산기지내 미8군 사령부 평택미군기지로 이전
- (2018년 6월) 용산기지내 주한미군사령부 평택미군기지로 이전
- (현재) 용산공원 기본설계 및 공원조성계획(안) 수립 중